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추수감사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87장 ..... 다같이**

1.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찬송 부르세
  2.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3.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 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에 두시리
  4.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천사 어울려 추수찬송 부르리
- 아 멘

**기 도 ..... 가족 중****성경봉독 ..... 느헤미야 12장 27~43절 ..... 인도자****설 교 .....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라” ..... 인도자****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말씀과 찬송,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3.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라

느헤미야 12:27-43

느헤미야 8장은 초막절 이야기다. 여호수아 이후 거의 1000년 만에 지킨 초막절이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뜰 안, 하나님의 전 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때 특별한 헌물이나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때는 곡물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이며,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광야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는 날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초막을 짓고, 매일 말씀을 낭독하고, 성회를 베풀었다.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된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 생활을 상징한다. 초막절은 물의 축제이기도 하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 느헤미야 9장은 회개의 성회를 통한 언약 갱신이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인봉하게 했다. 이처럼 느헤미야 시대는 성전과 성벽과 성경에 이어 절기와 언약을 회복했다. ▶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자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기를 위해서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이 먼저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봉헌식에서 성을 가득 채운 것은 감사 찬송이었다. 성벽 건축 과정에서 많은 위기와 노고가 있었지만, 성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크게 감동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을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에 처음 와서 밤에 성벽을 혼자 걸었을 때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을까? 수고가 큰 만큼 감사도 컸다. 백성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 ▶ 성전 봉헌식은 유다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 위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동그렇게 돌면서 행진하는 것이었다. 노래하는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일곱 제사장과 음악 연주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뒤따랐다. 성벽 전체를 사람들로 한 바퀴 감싸도는 모습이었다. 손에 손을 잡고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것은 자긍심을 키워주었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강화시켜 주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성벽 봉헌 이후, 백성들은 거제물과 처음 열매와 십일조를 즐거이 드려 성전 창고에 쌓았다. 즐겁게 드렸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당연시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하고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경 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이는 고난으로 연단될 때 얻어진다. 역경을 만날 때 자기 탓을 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지금 다시 도전하라.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은 감사하기와 운동하기다. ▶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련을 잘 견뎌낸다. 믿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믿음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 믿음은 실패의 경험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